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명하게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설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가운데 ‘독서와 문법’ 교과목의 독서의 방법, 그리고 ‘작문’ 교과목의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쓰기와 관련을 맺는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하였는지,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에는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해했다가 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 제시문 [나]에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제자와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승의 대화가 선글자와 자목의 예로 나와 있다.
- 제시문 [다]는 사람이나 사물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다른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대상의 새로운 면과 비밀을 알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 장영희, 「문학의 숲을 거닐다」
이관규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188~189쪽.
- [나] : 박지원, 「예덕선생전」
조현설 외(2014), 『고등학교 국어II』, 해냄에듀, 59쪽.
- [다] : 법정, 「거꾸로 보기」
신동훈 외(2014), 『고등학교 국어I』, 동아출판, 187~188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평가 요소 1(5점)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는 ‘편견’이다. 이것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
- 평가 요소 2(5점)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제시문에 근거하여 편견이 대상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므로 잘못된 것임을 제시문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요약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두 가지 예 중, 첫 번째 예만 설명하면 3점, 두 번째 예만 설명하면 2점, 두 예를 모두 설명하면 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평가 요소 1(10점)

[가]의 주제어 ‘편견’을 중심으로 [나]의 자목이 가진 문제점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는 편견이 대상을 왜곡하고, 편견에서 벗어날 경우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는 ‘편견’이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제시문 [나]를 읽어보면, 자목은 스승인 선굴자가 예덕 선생을 칭송하고 교분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 문하에서 떠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순전히 예덕선생의 비천한 직업(똥을 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선굴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직업의 특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편견 때문인 것이다. [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목의 문제점이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평가 요소 2(10점)

‘편견’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다]는 동일한 사람이나 사물도 끊임없이 변하고 형성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을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새로운 면이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물은 계속 변하므로 그 사물에 대한 변하지 않는 관념(고정관념)은 일종의 편견에 해당된다. [다]에 나타난 이러한 태도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1)번 문항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편견’이다. 첫 번째 예에서 엘리자베스는 첫인상만으로 다아시를 오만한 남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편견을 버린 후 그녀는 그가 너그럽고 사려 깊은 인물임을 알게 된다. 두 번째 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태민이는 청각 장애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전교 회장에 당선된다.

2)번 문항

[가]의 주제어인 ‘편견’의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나]의 자목이 가진 관점은 일종의 편견이다. 자목은 예덕선생의 비천한 직업을 이유로 스승인 선굴자가 그를 칭송하고 교제를 청하는 것을 반대하여 그의 문하를 떠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굴자의 대답이 보여주듯이 깨끗한 직업이 깨끗한 사람을, 더러운 직업이 더러운 사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이와 다르다. [다]의 태도는 사람과 사물은 항상 변하고 형성되는 것이므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대상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각도로 볼 때, 변화하는 대상의 새로운 면과 숨겨진 면을 볼 수 있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성취 기준의 하나인 ‘이해하며 읽기’와 ‘비판적 독해’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다문화 사회와 관용’을 통합하여 출제한 것이다.
- 이 문제는 [가]와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두 제시문에서 공통점을 찾아 [다]의 상황과 연계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표가 있다.
- 이 문제에서는 ‘설명’ 능력과 ‘비판’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설명 능력의 평가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독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의 ‘기미독립선언서’에서는 독립 선언의 취지가 ‘인류 평등의 대의 극명’, ‘자가의 신운명을 개척함’에 있으며, ‘타의 파괴’, ‘쌈을 내어 배척함’에 있지 않음을 파악해야 한다. [나]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특징과 샐러드볼 이론을 통해 ‘모든 문화가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유지하며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비판 능력의 평가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비판의 준거를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지는가에 중점을 둔다. [다]에서는 ‘화자’인 ‘나’가 생각하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가], [나]에서 찾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와 연관 지어 비판해야 한다.

□ 자료 출처

- [가] : 「기미독립선언서」
왕현중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223쪽. (집필진 윤문)
- [나] : 박윤진 외(2014), 『고등학교 사회』, (주)지학사, 68~70쪽.
- [다] : 김재영, 「코끼리」
우한용 외(2014),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과서, 360~361쪽.

□ 평가 기준

- 평가 요소 1(10점)

[가], [나]의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가]에서는 독립 선언의 취지가 ‘인류 평등의 대의 극명’, ‘자가의 신운명을 개척함’에 있으며, ‘타의 파괴’, ‘타를 쌈을 내어 배척’하는 데 있지 않음을 이해하고, [나]에서는 ‘샐러드볼 이론’이 ‘다양한 맛과 모양을 가진 재료들이 고유한 맛을 유지’하듯, 다문화 사회의 이민 정책이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서 의의를 가지도록 하려는 이론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것’ 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통점임을 찾아 설명한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면 10점
- [가]와 [나] 중 하나의 자료만을 설명하면 5점
- [가]와 [나]의 공통점을 설명하지 못하면 0점

○ 평가 요소 2(20점)

[가], [나]의 공통점을 근거로, [다]의 화자인 ‘나’가 생각하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함. [다]에서 화자인 ‘나’는 네팔인 아버지를 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으로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 채점 기준

- [가], [나]의 공통점을 근거로 [다]의 화자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대해 이중성을 띤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생각이 적절한지를 비판하면 20점
- [가], [나]의 공통점을 근거로 [다]의 화자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대해 이중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비판하지 못한 경우 15점
- [가], [나]의 공통점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의 화자가 생각하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이중성을 띠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나 비판하지 못한 경우 10점
- 각 채점 기준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에서는 독립 선언의 취지가 인류 평등을 주장하고 ‘타의 파괴’나 ‘생을 내어 배척하는데’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나]의 샐러드볼 이론은 다문화 사회의 이민 정책이 샐러드볼안의 샐러드가 ‘고유한 맛’을 유지하듯이, 하나의 집단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제시문의 공통점은 다른 문화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의 화자인 ‘나’는 네팔인 노동자인 쿤이 네팔 말을 쓰는 아버지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차별 받지 않기 위해 쿤은 미국사람처럼 청바지를 입고, ‘나’는 탈색제를 사용한다. 이로 보아 ‘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이중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인들이 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 등을 달리 보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 쿤의 이야기에서도 확인된다.

[다]의 화자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중성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문화 발전 가능성이나 국제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이중적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거나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문화와 삶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교과의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와 ‘사회·문화’ 교과의 ‘개인과 사회 구조’를 통합하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가]는 외부 효과의 두 가지 유형인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나]는 ‘공정 여행’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역기능 중 하나인 ‘사이버 불링’을 설명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가]에서 제시한 ‘외부 효과’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공정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과 [다]의 ‘사이버 불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 김중호·안병근(2014),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34쪽.
- [나] : 김중신 외(2014), 『고등학교 국어Ⅱ』, (주)교학사, 224~227쪽.
- [다] : 남궁달화 외(201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주)교학사, 161쪽.

□ 평가 기준

- 평가 요소 1(20점)
[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와 [다]를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함(20점)
- ◆ 채점 기준
 - [가]의 개념과 [나]의 ‘공정 여행’의 관계를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의 개념과 [다]의 ‘사이버 불링’의 관계를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평가 요소 2(20점)
[가]의 관점에서 [나]의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과 [다]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함
- ◆ 채점 기준
 - [가]의 관점에서 [나]의 ‘공정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에서 [다]의 ‘사이버 불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가]에 의하면, 외부 효과란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공정 여행’은 여행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부 경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다]의 ‘사이버 불링’은 인터넷 상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 불경제’로 볼 수 있다.

[나]의 ‘공정 여행’은 여행자에게 주민들이 경험하는 이익에 따른 대가가 없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잘 실행되지 않는다. 반면에 [다]의 ‘사이버 불링’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경험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나]의 ‘공정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행자들이 ‘관행 여행’ 대신 ‘공정 여행’을 선택하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 여행’에 따른 대가를 여행자들이 받도록 하고, [다]의 ‘사이버 불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